

(붙임 2)

사 진 자 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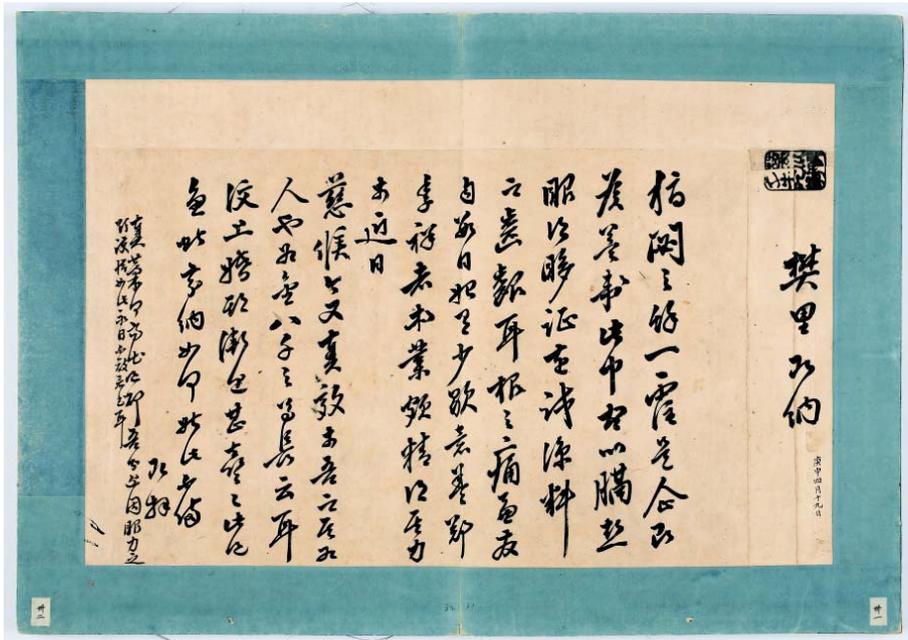
< 고려 시대 왕실의료기관 이름이 새겨진 청자상감상약국명합,
고려, 12세기, 보물 제646호 | 한독의약박물관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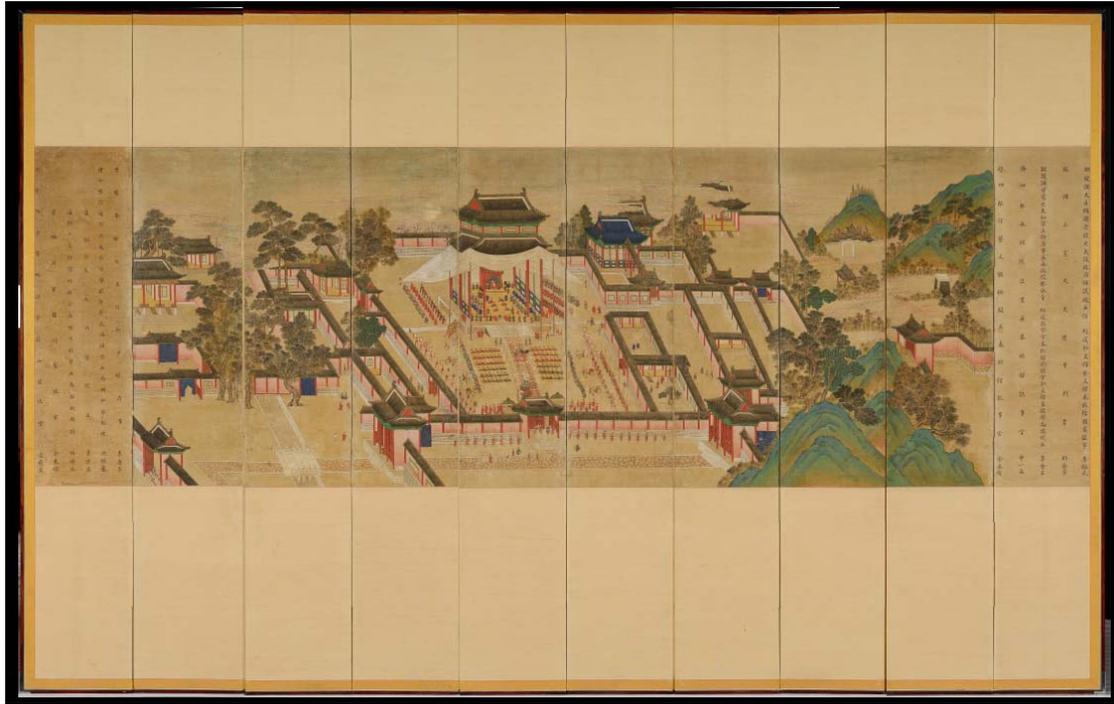
<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(1335~1408년)의 땃줄과 태반을 넣었던
태항아리 | 고려 후기, 14세기 | 국립고궁박물관 >



< 사도세자(思悼世子) 양육과정을 기록한 『경모궁 보양청일기』, 조선, 1735년(영조 11) |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>



< 사망 직전 격열(膈熱)에 시달리던 정조의 편지글, 조선, 1800년(정조 24) | 국립중앙박물관 >



< 왕세자 탄신 축하의식 병풍 | 조선, 1874년(고종 11) | 보물 제1443호 | 국립고궁박물관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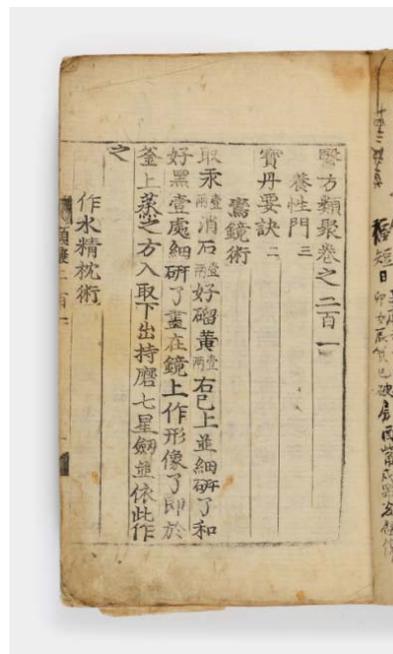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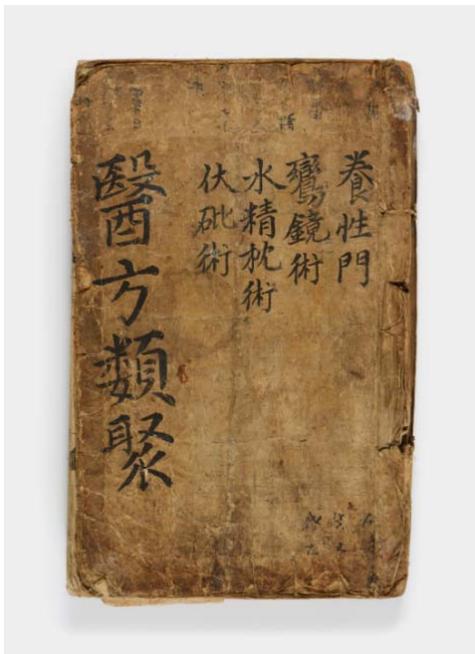


< 왕세자 천연두 회복 축하의식 병풍 | 조선, 1879년(고종 16) | 국립고궁박물관 >

* 순종의 출생과 천연두 치료에 대한 자료



< 무병장수를 염원하는 《십장생도병풍》 | 조선 | 국립고궁박물관 >



<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관찬의서이자 국내 유일본인 『의방유취(醫方類聚)』 | 조선, 1477년(성종 8) | 보물 제1234호 | 한독의약박물관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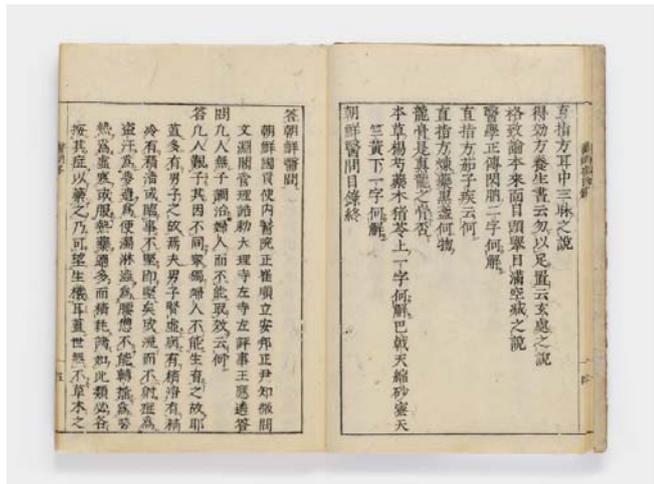
< 독약을 넣는 것을 막기 위한 백자은구약주전자 | 조선 후기 |
한독의약박물관 >



< 내의원의 임무를 깊게 새겨 넣은 《보호성궁》, 《조화어약》 현판 | 조선
| 국립고궁박물관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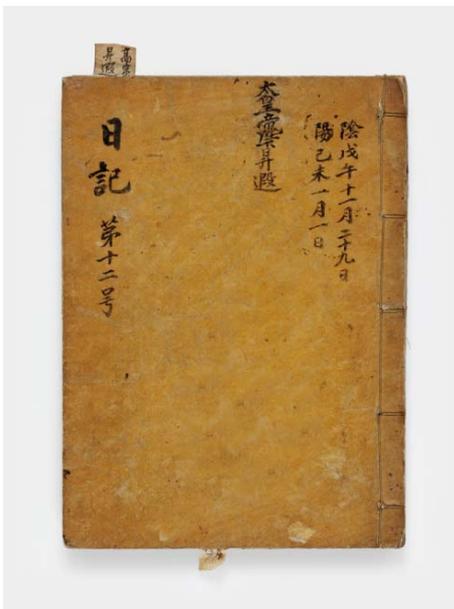
< 국내에 몇 권 남아 있지 않은 『동의보감東醫寶鑑』 초간본 | 조선, 1613년 (광해군 5) |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45호 | 한독의약박물관 >



< 동아시아 삼국 의학자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『조선의문답朝鮮醫問答』 | 조선, 1720년(숙종 46) | 한독의약박물관 >



< 침이나 뜸 놓는 자리인 경혈(經穴, 몸 속의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)을 표시한 동인(銅人) | 조선 | 국립고궁박물관 >



< 고종의 사망 순간을 기록한 『태의원일기(太醫院日記)』 | 1908~1942년경 |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>

